

연암의 자연 사물 관찰과 글쓰기 양상 분석 연구: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여행기를 중심으로

김다원*

A study on the Yeon-Am's observation of natural objects and writing: Centered on Yeon-Am's 『Yorha Ilgi』 travels

Da Won Kim*

요약 : 연암의 관찰법을 활용한 자연사물 글쓰기는 자연환경 관찰력을 배양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암의 『열하일기』 글을 대상으로 하여 연암이 활용했던 관찰법을 분석하였다. 연암의 관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연암의 관찰법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찰이다. 둘째, 오감을 활용한 관찰과 오감 활용의 위험성과 한계 인식이다. 셋째, 자연과 인간에 대한 평등 의식을 지닌 관찰이다. 연암은 자연을 인간과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았다. 넷째, 부분적으로 관찰한 것들을 형상화 기법을 활용하여 생동감있게 그리고 현장감있게 묘사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관점을 활용한 다양성 발견 관찰이었다. 이러한 연암의 자연사물 글쓰기의 원천은 자연사물에 대한 세부적 관찰과, 교감, 형상화, 다양한 관점과 다양성 발견에 기반하고 있다.

주요어 : 연암 박지원, 자연사물 관찰, 창의적 글쓰기, 지리교육

Abstract : Yeon-Am's observation of natural object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cultivation of the observation skills. In this study, I analysed Yeon-Am's observation skills in the book 『Yorha Ilgi』. Yeon-Am's observation skills are as follows.

First, Yeon-Am observed a specific and detailed. Second, Yeon-Am was examined by utilizing the five senses and presented its risks and limitations. Third, Yeon-Am observed with the equality between man and nature and looked at the same level of human and nature. Fourth, Yeon-Am expressed those observed by utilizing the shaping techniques vividly. Fifth, Yeon-Am found a variety of features by a variety of perspectives. The origin of Yeon-Am's writing is based on specific and detailed observations of the natural objects, joining nature, shaping techniques and diversity in perspective.

Key Words : Yeon- Am Ji-Won Park, Observation of natural objects, Geographical writing, Creative Writing, Geography education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인류의 생존은 세심한 관찰의 눈으로 주변을 얼마

나 잘 관찰하고 주의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 인간의 생존은 주변의 상황 인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달콤한 딸기와 독 딸기를 구분하는 것, 생존을 위해 안전한 거주지를 정하는 것, 야생 동물로부터 자신을

*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교육전담교수(Teaching Professor, ELP College of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veritas2@catholic.ac.kr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선정하는 것 등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환경과 조응할 수 있는 방법을 관찰을 통해 결정해 왔다(바버라 베이그(박병화 옮김), 2010, 122). 관찰은 인류 생존을 위해 창의적으로 삶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생각 도구였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관찰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각도구임에는 틀림없다. 오히려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창의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생각 도구로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세부적인 예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특징에서 사물들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끌어 내고, 이에 기반하여 창의적인 모형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버트 루트번스타인·미셸 루트번스타인(박종성 옮김), 2007, 58). 관찰을 통해서 대상을 정밀하게 볼 수 있고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패턴들로부터 새로운 원리, 사물들이 지닌 유사점, 그리고 새로운 창의적 모형 등을 유추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인 바버라 베이그는 “관찰은 훌륭한 작가가 하는 일의 하나이며, 또 글쓰기를 위한 기본적인 과정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바버라 베이그(박병화 옮김), 2010, 124). 작가는 자신이 보고 관찰한 것을 토대로 창조한 세계를 글로 표현하게 된다. 즉, 글은 작가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표현인 것이다. 또한, 화가는 자신이 본 것을 마음으로 재현하여 그림으로 표현한다(로버트 루트번스타인·미셸 루트번스타인(박종성 옮김), 2007, 61). 화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찰한 것을 그림으로 재현한 것이다. 화가들도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대상을 재현한다는 것이다. 한 사물에 대한 적극적 관찰을 통해 대상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묘사는 사물이나 상황, 대상을 그림 그리듯 그대로 재현해 내는 것이며, 사물이나 상황,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것을 찾아내서 보이게 하는 재현의 과정이다(김다원 등, 2013, 124).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대상을 재현하는 묘사에서도 적극적 관찰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관찰은 지리 답사에서도 지역의 특성 파악, 자연 경관의 특성 파악, 지리적 사물 관찰과 같은 현장 조

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Kent *et al.* (1997)은 지리 답사를 통해 학생들의 관찰력, 경관 분석 및 해석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효과적 지리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지리답사의 필요성을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지만(박철웅, 2013; 송언근, 2004; 오선민·이종원, 2014; 이종원 등, 2007; 임은진, 2011; 정재승, 2011, 차경미, 2008),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연사물에 대한 관찰법에 대한 제안은 풍요롭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하는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리학을 위해서 자연사물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박승규, 2011, 777). 이경한(2004, 90)은 지리교육에서 현장 학습이나 여행을 통한 경관미의 관찰을 활용하여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지리의 장점은 학생들에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경이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원래,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내적 호기심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Kronman, 2007, 216). 이것은 두 번째의 경이감을 불러일으킬 지식의 탐구 또는 교육의 과정을 이끌어 낸다. 여기서, 사물에 관한(*about*) 우리의 경이감은 사물에서의(*at*) 경이감으로 변형될 필요가 있다. 즉 ‘사물의 구조에 대한 놀라움과 이러한 구조를 우리 스스로 파악하는 우리의 역량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리 수업이 세계의 자연환경에 내재된 다양성과 원리를 들여다보게 할 때, 이러한 학습 체험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리적 환경에의 관심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연암의 글쓰기는 독특한 관찰과 사물인식의 결정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창의적 표현 글쓰기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최신희, 1985; 고미숙, 2005; 박수밀, 2011a; 강혜규, 2008). 당시 조선후기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학문을 근간에 두고 자연관찰을 통해 독특한 세상보기와 독특하게 지리 환경을 표현하는 자기 방식에 의한 새로운 지리적 사물의 창작 방식을 세웠다는 것을 그의 여러 작품을 통해서 찾

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암의 『열하일기』 「산장잡기」 여행기편을 대상으로 연암의 자연관찰법과 글쓰기 양상을 찾아보고자 한다.

『열하일기』는 연암 박지원이 정조 4년(1780년) 삼중형 박명원이 청나라 건륭제의 칠순 잔치에 가는 길에 동행하여 연경(현재 북경)을 거쳐 열하에 이르기까지 행차 중 겪은 경험과 관찰한 것을 기록한 여행기이다(박지원(김철조 옮김), 2009a, 4). 여행 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여행기이지만 여행이라는 장을 전혀 다른 배치로 바꾸고, 그 안에서 여행자와 이국적 풍경의 경계, 말과 사물의 경계를 종횡무진 흘러다니는 창의적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준다(고미숙, 2003, 25). 이 질적인 것들과 자연 사물에 접근하고 접촉하려는 그의 욕망에는 경계가 없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고 보이는 것에서도 감춰진 것들을 보려고 한다. 『열하일기』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손용택, 2004, 497). 첫째,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에 입국한 후 성경(오늘날의 심양)을 거쳐 산해관을 지나 북경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접한 감회를 기록한 부분과 둘째, 북경에 잠깐 체류한 뒤 열하까지 갔다가 오면서 견문하고 관찰한 청조의 정치외교 실상을 기록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자연사물에 대한 관찰과 관찰한 것에 대한 단편적 기록들이 집중 수록된 후반부의 「산장잡기」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2. 연암 글쓰기의 특징

박수밀(2011a)은 연암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며 연암의 글을 최고의 문장으로 만든 본질은 쓰기 전 활동인 자연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심미 태도에 있었다고 하였다. 연암 박지원은 당대 다른 어떤 학자보다도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던 인물이며, 그 고민에서 나온 좋은 글쓰기의 방법으로 자연 사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을 제시하였다. 연암의 글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이끌어내는 면에서 자연 사물에 대한 관찰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박수밀, 2010, 409; 최신희, 1985, 107; 강혜규, 2008, 65). 또한, 중국(청나라)에 대한 자연지리적 인식, 문화지리적 인식, 지역지리적 인식의 측면에서도 독특한 지리관을 보여주었다(손용택, 2004, 508).

연암의 글이 자연사물에 대한 관찰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를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연암의 대부분 글은 자연사물을 글감으로 하고 있다. 박수밀은 연암의 글은 조선 후기 당시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고대의 경전이나 성인의 정신을 전범으로 설정하고 그 표현과 정신을 닮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자연사물에 직접 다가가서 그 형상을 관찰하고 관찰한 형상과 느낌을 글로 옮기는 획기적인 글쓰기였으며 자연사물에게서 배워 글로 옮기는 것이었다고 하였다(박수밀, 2010, 355-358).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간의 내면세계에 주된 관심을 갖고 글로 표현한 데 반해, 연암은 자연 사물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 삶과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았다.

둘째, 연암은 자연사물과 자연의 이치를 현실적인 사회와 연계시키는 창의적 글쓰기를 실천하였다. 연암에게 있어서 자연은 삶의 환경이자 무대이지만 동시에 배움의 장이었다. 이는 삶의 환경으로서 자연의 소중함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자연사물과 인간의 평등하기의 실천을 의미하기도 한다(박수밀, 2011b, 358). 이는 자연사물에서 현실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 제시한다는 면에서 창의적 글쓰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연암의 대표적인 글로 잘 알려진 ‘호질’ 글에서 호랑이를 의인화하여 인간 세상의 병폐를 지적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셋째, 연암은 자연사물에 대한 꼼꼼한 관찰을 통해 대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관찰법을 활용하고 있다. 연암의 관찰법은 독특하다. 사소해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자연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누구보다 대단한 작가였다. 박희병(1999)은 연암에게 있어서 언어는 사물과 현실·자연이자 그 표현이라고 하였다. 『열하일기』 여행기에는

연암이 접했던 지역의 경관과 정취가 매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새롭게 접하게 된 장소의 자연 경관을 치밀하게 관찰하였고 관찰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환상의 메타포를 활용한 형상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연암의 당시 청나라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세, 기후, 날씨 등의 자연환경과 지명, 청조의 다양한 사람들의 인물됨과 복장, 그리고 특정 장소에 대한 장소감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청나라에 대한 지리관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자연환경에 대한 관조와 치밀한 관찰로 인해, 지리학자 이상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묘사하여 대단히 현장감을 주며, 지리적 탐구심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러한 자연 사물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관찰에는 꼼꼼하게 대상을 들여다보는 연암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아들 박종채의 아버지에 대한 모습 회고를 통해 연암의 관찰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연암골에 계실 때 일이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대청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날도 있었고, 간혹 사물을 응시하며 한참 동안 묵묵히 말이 없으시기도 하였다. 당시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비록 미미한 사물들, 이를테면 풀, 꽃 새, 벌레와 같은 것도 모두 지극한 경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서 하늘이 부여한 자연의 현묘함을 엿볼 수 있다.” 아버지는 매양 시냇가의 바위에 앉으시기도 하고 나직히 읊조리며 천천히 산보하시다가 갑자기 멍하니 모든 것을 잊으신 것 같은 모습을 하기도 했다. 때때로 묘한 생각이 떠오르면 반드시 붓을 들어 써 두셔서 잔글씨로 쓴 종잇조각이 상자에 가득 찼다.

출처: 박종채(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184.

이러한 면에서 연암의 글쓰기는 자연 사물에 대한 관찰법의 모범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연암의 『열하일기』 글을 토대로 연암의 자연 관찰과 글쓰기 양상을 자연 관찰법, 자연과의 교감하는 법, 그리고 자연을 글로 표현하는 법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암의 자연관찰과 글쓰기 양상 분석

『열하일기』 여행기에는 연암이 접했던 지역의 경관과 정취가 매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새롭게 접하게 된 장소의 자연 사물과 자연 경관을 치밀하게 관찰하였고 관찰한 것을 생동감있게 표현하였다. 다음에서는 연암의 자연 사물에 대한 관찰과 표현의 방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연암의 자연사물 관찰법 분석

연암은 꼼꼼하게 대상을 관찰하는 관찰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에서는 연암의 열하 여행기 『열하일기』 글들을 중심으로 연암의 세부적인 관찰태도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열하일기』 「상기象記」편에 나온 내용이다.

내가 일찍이 새벽에 우리나라의 동해 바닷가를 거닌 적이 있었다. 파도 위에 말처럼 생긴 것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았는데, 모두 활꼴 모양으로 중앙이 높고 옆이 처진 집체 같아서, 그게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알지 못했다. 해가 돌기를 기다려 자세히 보려고 했더니, 해가 막 수면 위로 솟아 오르지 물결 위에 말처럼 섰던 것들은 바다 속으로 숨어버렸다.

이번에 코끼리를 열 걸음 밖에서 보았는데, 그때 동해에서 상상했던 것이 떠올랐다. 코끼리의 모습은 몸뚱이는 소 같고, 꼬리는 나귀 같으며, 낙타의 무릎, 범의 발굽을 하였으며, 짧은 털은 회색이었다. 어질어 보이는 모습에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귀는 구름장같이 드리웠고, 눈은 초승달 같았다. 두 어금니는 굵기가 두 줍쯤 되고 길이는 한 발 남짓 된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고, 굽혔다 펴는 모습이 자벌레와 같으며, 도르르 마는 모습은 굼벵이 같고 코의 끝은 누에 콩무니 같은데, 물건을 죽집게처럼 집어서 돌돌 말아서서는 입에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들은 코를 주둥이로 생각하여 코를 따

로 찾아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코 생김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까닭이다. 더러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이라고도 하고, 코끼리의 눈이 쥐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대체로 코끼리의 코와 어금니인 상아를 보다가 생각이 그만 궁색해지기 때문이다. 그 전체 몸뚱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엉터리 계산이 나오게 된다. 대개 코끼리 눈은 몹시 가늘게 생겨서 간사한 사람이 눈부터 먼저 웃으며 아양을 떠는 것과 같으나 코끼리의 어진 성품은 바로 눈에 있다.

출처: 박지원(김철조 옮김), 『열하일기』 2, 돌베개, 2009, 509-510.

위 글에서 연암이 사용한 관찰법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구체적 관찰이다. 코끼리의 독특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시각과 청각을 활용하여 코끼리의 습성과 행태를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묘사하였다. ‘짧은 털은 회색’, ‘두 어금니는 굵기가 두 줍쯤 되고 길이는 한 발 남짓 된다.’는 표현을 보더라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한 글이다. 또한 “어질어 보이는 모습에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귀는 구름장같이 드리웠고, 눈은 초승달 같았다.”에서와 같이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함께 사용하여 생생한 표현을 살렸다.

둘째는 비유적 관찰이다.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관점이 들어가게 된다. 연암은 비유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담은 관찰을 하고 있다. 즉, “코끼리의 모습은 몸뚱이는 소 같고, 꼬리는 나귀 같으며, 낙타의 무릎, 범의 발굽을 하였으며, 짧은 털은 회색이었다. 어질어 보이는 모습에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귀는 구름장같이 드리웠고, 눈은 초승달 같았다.”에서처럼 코끼리의 모습을 자신의 지식과 관점의 범위 안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셋째는 다각적 관찰이다. 당시 코끼리의 행태와 습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구체성을 살려 자신이 본 것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코를 주둥이로 생각하여 코를 따로 찾아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코 생김 모

양이 이렇게 생겼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까닭이다. 더러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이라고도 하고, 코끼리의 눈이 쥐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표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구체적으로 관찰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관찰자 관점에서 시각과 생각을 피력하는 다각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암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언제, 어디서, 어떤 생각을 지니고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¹⁾라는 인식 구조를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연암은 코끼리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대상의 개체적 특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열하일기』의 「야출고북구기 夜出古北口記」의 일부분이다. 한밤중 고북구 장성 주변의 자연을 섬세한 묘사와 참신한 비유를 활용하여 고북구 장성 주변의 장소성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고북구 장성 아래는 바로 날고뛰고 하던 전쟁터였으니, 지금 사해는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여기 사방의 산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골짜기는 음산하며 매우 어둡침침하다.

때마침 달은 초승달로 고갯마루에 걸려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빛이 싸늘하고 모진 모습이 마치 솟돌에 버린 칼처럼 생겼다. 조금 뒤에 달은 더욱 고개 아래로 내려갔으나 그래도 양쪽에 뾰족한 모습을 드러내더니 홀연히 붉은 색으로 변하여 마치 두 개의 햇불이 산에서 나오는 것 같다.

북두성은 반쯤 관문 가운데에 꽃혔으며, 사방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일고 획 하며 긴 바람이 숙연하게 불어와 숲과 골짜기가 모두 울린다. 짐승처럼 생긴 바위와 귀신 모양의 낭떠러지는 마치 전쟁터에 병장기를 모조리 세워 둔 것 같다. 강물이 양쪽의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며 부딪히고 싸우는 모습이 건장한 말들이 내닫고 징 소리 북소리가 마구 울리는 것 같다. 하늘 끝에 학의 울음소리가 대어섯 번 나는데 그 소리가 맑고 아련한 것이 마치 길게 간드러지는 피리 소리처럼 들린다. 어떤 사람이 이는 천아天鵝의 소리라고 말한다.

출처: 박지원(김혈조 옮김), 『열하일기』2, 돌베개, 2009, 479.

위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암의 관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다양한 개체 자연 사물과의 접촉과 관찰이다. 예를 들어, 초승달, 북두성, 풀벌레, 바람, 바위, 낭떠러지, 강물, 학의 울음소리 등 아주 흔히 누구나 보아왔던 자연사물에 대한 관심과 교감이다. 고북구 장성 주변 장소는 초승달, 북두성, 풀벌레, 바람, 바위, 낭떠러지, 강물, 학의 울음소리 등의 다양한 자연사물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자연사물들의 특성에 의해 장소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자연사물 개체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관찰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비유적 관찰과 표현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햇불이 산에서 나오는 것 같다.', '짐승처럼 생긴 바위와 귀신 모양의 낭떠러지는 마치 전쟁터에 병장기를 모조리 세워 둔 것 같다.', '강물이 양쪽의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며 부딪치고 싸우는 모습이 건장한 말들이 내닫고 징 소리 북소리가 마구 울리는 것 같다.', '하늘 끝에 학의 울음소리가 대어섯 번 나는데 그 소리가 맑고 아련한 것이 마치 길게 간드러지는 피리 소리처럼 들린다.' 등을 보면, 모두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다소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용어들이다. 셋째, 소리(聲), 색(色), 감정(情), 위치(境)의 통찰적 관찰이다. 자연사물이 내는 소리와 자연사물의 색채, 그리고 자연사물의 모습, 자연사물이 있는 곳에 대한 관찰과 표현을 중요시한 것이다(최신희, 1995, 497).²⁾ '때마침 달은 초승달로 고갯마루에 걸려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빛이 싸늘하고 모진 모습이 마치 솟돌에 버린 칼처럼 생겼다. 조금 뒤에 달은 더욱 고개 아래로 내려갔으나 그래도 양쪽에 뾰족한 모습을 드러내더니 홀연히 붉은 색으로 변하여 마치 두 개의 햇불이 산에서 나오는 것 같다.'와 '북두성은 반쯤 관문 가운데에 꽃혔으며, 사방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일고 획 하며 긴 바람이 숙연하게 불어와 숲과 골짜기가 모두 울린다. 짐승처럼 생긴 바위와 귀신 모양의 낭떠러지는 마치 전쟁터에 병장기를 모조리 세워 둔 것 같다.'에서와 같이 소리, 색감 표현, 시각적 형상화, 위치와 장소 표현을 통해 생생한 현장감

과 과학적인 신뢰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연암의 독창적인 관찰법과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열하일기』의 「일야구도하기 一夜九渡河記」의 일부분이다. 여기서는 감각을 활용하여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밝히면서 자신의 사물 인식의 방법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험을 볼 수 없으니 그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쏠려 귀가 바야흐로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그 걱정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오늘에서야 도道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도다. 마음에 잡힌 생각을 끊은 사람, 곧 마음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거니와,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일수록 보고 듣는 것을 더 상세하게 살피게 되어 그것이 결국 더욱 병폐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오늘 마부인 창대가 말발굽에 발이 밟혀서 뒤에 따라오는 수레에 실렸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말의 고삐를 늦추어 혼자 말을 타고 강물에 들어갔다. 무릎을 굽혀 발을 모으고 안장 위에 앉았으니 한번만 까딱 곤두박질치면 그대로 강바닥이다. 강물을 땅으로 생각하고, 강물을 옷이라 생각하며, 강물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강물을 내 성품과 기질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까짓것 한번 떨어지기를 각오했다. 그랬더니 내 귓속에는 강물 소리가 드디어 없어져 무릇 아홉 번이나 강물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근심이 없었다. 마치 안방의 자리나 안석 위에서 앉고 눕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았다.

(중략)

소리와 빛깔이란 내 마음 밖에서 생기는 바깥 사물이다. 이 바깥 사물이 항상 사람의 귀와 눈에 탈을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똑바로 보고 듣지 못하게 만든다. 더구나 한세상 인생살이를 하면서 겪는 그 험하고 위태함은 강물보다 훨씬 심하여, 보고 듣는 것이 문득문득 병폐를 만들어 있어서라.

출처: 박지원(김혈조 옮김), 『열하일기』2, 돌베개, 2009, 485-486.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상을 관찰할 때는 오감을 활용한다. 오감 중에서도 시각, 청각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그런데 연암은 시각과 청각이 오히려 대상의 본질을 보고 느끼는 데 있어서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음을 경고한다. 오감 중에서도 시각은 가장 먼저 대상을 감지하게 하는 감각기관이다. 그래서 시각적 인식의 결과가 그 이후의 지각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제대로 된 관찰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제대로 듣는다는 것, 제대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암시한다. 그렇다면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마음으로 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대상의 외현 보다는 본질을 보도록 권한다. 모든 사물은 공간적, 시간적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물의 속성은 변화하며 공간의 차이에 따라 사물의 속성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농산물이라도 중국산과 국산은 맛과 형태가 다르다. 그리고 옛날과 오늘날 농산물은 진화와 유전자 변형을 통해 다른 맛과 모양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고 들어서 알고 있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해당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보이는 모습과 들리는 소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연암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각의 한계를 인지하고 대상을 마음으로 보는 방법을 권한다. 그리고 외현적인 시정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본질을 보고 이해하도록 한다. 즉, 주체자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2) 관찰 내용의 형상화를 활용한 장소성 표현

형상화는 현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서부터 특이한 추상능력, 감각적인 연상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형상화는 내면의 감각들이 모두 동원되어지는 것이며 지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모든 이미지들이 다른 사물들에 빚대어 전달되기도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연결지어 이루어지기도 한다(로버트 루트벤스타인·미셸 루트벤스타인(박종성 옮김), 2007, 83). 형상화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지각, 유추적 상상력에 의해 새롭게 결합되어 나

타나는 것으로 창의적 상상을 위해 필요한 생각도구이다. 연암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관찰한 내용의 형상화이다. 연암은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시각화하여 그것을 글로 전달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암의 형상화 글쓰기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암의 『열하일기』의 「야출고북구기 夜出古北口記」의 일부분을 보면, 한밤중 고북구 장성 주변의 자연을 섬세한 묘사와 참신한 비유를 활용하여 형상화한 표현을 볼 수 있다.

고북구 장성 아래는 바로 날고뛰고 하던 전쟁터였으니, 지금 사해는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여기 사방의 산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골짜기는 음산하며 매우 어둡침침하다. 때마침 달은 초승달로 고갯마루에 걸려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빛이 싸늘하고 모진 모습이 마치 솥뚜에 버린 칼처럼 생겼다. 조금 뒤에 달은 더욱 고개 아래로 내려갔으나 그래도 양쪽에 뾰족한 모습을 드러내더니 홀연히 붉은 색으로 변하여 마치 두 개의 햇불이 산에서 나오는 것 같다.

북두성은 반쯤 관문 가운데에 꽃혔으며, 사방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일고 휘 하며 긴 바람이 숙연하게 불어와 숲과 골짜기가 모두 울린다. 짐승처럼 생긴 바위와 귀신 모양의 낭떠러지는 마치 전쟁터에 병장기를 모조리 세워 둔 것 같다. 강물이 양쪽의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며 부딪치고 싸우는 모습이 건장한 말들이 내닫고 징 소리 북소리가 마구 울리는 것 같다. 하늘 끝에 학의 울음소리가 대어섯 번 나는데 그 소리가 맑고 아련한 것이 마치 길게 간드러지는 피리 소리처럼 들린다. 어떤 사람이 이는 천아天鵝의 소리라고 말한다.

출처: 박지원(김철조 옮김), 『열하일기』 2, 돌베개, 2009, 479.

연암은 ‘달’을 의인화하여 옛날 중국과 주변 국 간 전쟁터의 모습을 두루 살펴보는 것처럼 설정하면서도 당시 전쟁을 치루었던 두 국가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북두성, 풀벌레, 바람, 골짜기, 숲,

바위, 낭떠러지, 강물, 징소리, 북소리 등을 의인화하고, 고북구 장성의 분위기에 맞게 적절한 비유와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고북구 장성 주변 장소를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시각에서 장소를 바라보려는 연암의 의도를 엿볼 수 있으며, 동시에 자연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교감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북구 장성의 장소성을 독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연암의 형상화 기법은 다음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이 두 산 사이에서 흘러나와 바위와 부딪치며 사납게 싸우면서 놀란 파도, 성난 물결, 분이 난 큰 물결, 화가 난 물보라, 구슬픈 여울, 흐느끼는 소용돌이가 달아나며 부딪치고 굽이치고 곤두박질치면서 으르렁 소리치며 울부짖고 포효하며, 언제나 만리장성을 꺾어서 무너뜨릴 기세이다. 만 대의 전차, 만 마리의 전투 기병대, 만 톨의 전투 대포, 만 개의 전투 북을 가지고도 무너뜨리고 갈아서 뭉겔 것 같은 저 야단스러운 소리를 충분히 형용할 수 없으리라.

모래밭 위에 큰 바윗돌은 우뚝하게 외따로 섰고, 강 둔덕의 버드나무숲은 까마득하고 어두컴컴하여 마치 물귀신과 강 도깨비가 앞을 다투어 튀어나와 사람을 놀리는 듯, 교룡蛟龍과 이무기가 양쪽에서 서로 움켜쥐고 낚아채려 날뛰는 듯하다. 혹자는 말하리라, 여기는 옛날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이렇듯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낸다고. 그러나 이는 그런 까닭이 아니다. 무릇 강물 소리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출처: 박지원(김철조 옮김), 『열하일기』 2, 돌베개, 2009, 482.

이 글은 연암이 북경에서 열하로 가는 도중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한 「일야구도하기」 일부분이다. 열하에 머물고 있는 청나라 황제의 생신에 맞춰 가는 중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이나 건넌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 북경에서 열하까지는 짧은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이

루어진 여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하룻 밤에 아홉 번 강물을 건너게 되었을 것이고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첩첩산중의 지역을 지나는 부분이다. 연암은 시간적으로 재촉되는 상황, 공간적으로 첩첩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유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유속도 빠른 강물을 그것도 밤에 건어야 하는 위험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즉, 위험성을 지닌 장소 묘사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위험성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물리적 환경 모두에 내재된 것이다.

연암은 물소리와 주변의 자연 사물들을 활용하여 과거 역사성과 현재의 위험성을 지닌 이 곳의 장소성을 드러내고 있다. 사납게, 성난, 분이 난, 화가 난, 구슬픈, 포효하며 등과 같은 다소 위협적인 수식어의 활용과 자연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이 장소를 지날 때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물귀신, 강 도깨비, 전쟁터 등의 시각적 모습을 청각적 표현과 결합시켜 이 장소에 대한 역사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다양한 관점과 다양성의 발견

연암의 글이 창의적 글쓰기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의 하나는 자연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점의 다양성을 활용한 사물의 다양성 발견이다. 관점의 다양성은 사고의 다양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자연 사물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관점의 다양성은 자연 사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고 상호 교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 창의적 글쓰기에 효과적이다. 직접 보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나 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누군가의 관점일 것이고 이미 진부한 표현일 뿐이다. 자신의 관점에서 직접 대상을 살펴보면, 또 다른 뭔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연암의 생각이다(강혜규, 2008, 65). 이는 자연 환경에 감춰진 다양한 특성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연암은 다양한 관점에서 자연사물 ‘관찰’을 통해 자신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표현하는 창의성을 보여준다. 다음의 글에서 이러한 연암의 다양한 관점과 다양성 발견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사는 연암협燕巖峽 산중에는 집 앞에 큰 개울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낙비가 한차례 지나가면 개울물이 갑자기 불어서 언제나 수레 소리, 말 달리는 소리, 대포 소리, 북소리를 듣게 되어 마침내는 아주 귀에 탈이 생길 지경이었다. 언젠가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의 종류를 다른 사물에 비유하면서 들어보았다.

우거진 소나무 숲에서 통소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물소리, 이는 청아한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산이 짜개지고 절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물소리, 이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들은 것이다. 개구리 떼가 다투어 우는 것 같은 물소리, 이는 뽀내고 건방진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물소리, 이는 놀란 마음으로 들은 것이다. 찻물이 화력의 약하고 강함에 따라서 각기 보글보글 부글부글 끓는 것과 같은 물소리, 이는 아취 있는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거문고가 가락에 맞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뚱뚱거리는 물소리, 이는 애잔한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종이 창문에 문풍지가 떠는 듯 파르르 하는 물소리, 이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은 때문이다. 모두 그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까닭은 다만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소리라고 이미 설정해 놓고서 귀가 소리를 그렇게 듣기 때문이다.

출처: 박지원(김철조 옮김), 『열하일기』2, 돌베개, 2009, 483.

‘계곡물 소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리를 생각해 낼 수 있다. 이미 타인의 경험을 통해 마음이 정해놓은 결과이다. 그러나 연암의 계곡물 소리에 대한 다양한 표현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직접 미세하게 경험하여 터득한 소리에 대한 지각 결과이다. 물소리에 대해 특정 공간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마음 상태에서 경험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시간적, 감정적 다양성을 열어둔 경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에 경험한 것에 의거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계곡물소리 자체에 대한 집중 관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계곡물소리를 경험한 것은 계곡물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획득하였다.

한 가지의 소리직접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미세하게 달리 들리는 소리의 차이를 경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감정 상태에서 계곡물 소리를 다양하게 경험하여 표현한 부분은 연암의 미세한 자연관찰과 자연과의 교감 결과이다. 계곡 물소리로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관찰 태도와 때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로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보통 사람들이 쉽게 포착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는 연암의 관찰법을 보여준다.

또한, 연암은 하늘의 작용을 절대화해 인간 세상의 행동 양식을 한 가지 기준으로 가두는 사회 규범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개별적 사물에 따른 다양성 발견의 가치를 강조하였다(박수밀, 2013, 45). 이는 『열하일기』의 「코끼리에 대한 기문 상기象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코끼리 두 마리를 열하 행궁 서쪽에서 보았는데 온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움직이는데, 가는 것이 폭풍우처럼 빠르다. (중략)

이번에 코끼리를 열 걸음 밖에서 보았는데, 그때 동해에서 상상했던 것이 떠올랐다. 코끼리의 모습은 몸뚱이는 소 같고, 꼬리는 나귀 같으며, 낙타의 무릎, 범의 발굽을 하였으며, 짧은 털은 회색이었다. 어질어 보이는 모습에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귀는 구름장같이 드리웠고 눈은 초승달 같았다. 두 어금니(상아)는 굵기가 두 줍뽀 되고, 길이는 한 발 남짓 된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고, 굽혔다 펴는 모습이 자벌레와 같으며, 도르르 마는 모습은 굼벵이 같고, 코의 끝은 누에 콩무늬 같은데, 물건을 죽집게처럼 집어서 돌돌 말아서는 입에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은 코를 주둥이로 생각하여 코를 따로 찾아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코 생김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까닭이다. 더러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이라고도 하고, 코끼리의 눈이 쥐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대체로 코끼리의 코와 어금니인 상아를 보다가 생각이 그만 궁색해지기 때문이다. 그 전체 몸뚱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엉터

리 계산이 나오게 된다. 대개 코끼리 눈은 몹시 가늘게 생겨서 간사한 사람이 눈부터 먼저 웃으며 야양을 띠는 것과 같으나 코끼리의 어진 성품은 바로 눈에 있다.

출처: 박지원(김철조 옮김), 『열하일기』2, 돌베개, 2009, 509-510.

연암은 세밀한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관찰로, 일반인들이 절대화하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새롭게 접근하여 표현한다. 또한 한 가지 모습과 하나의 관점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대상을 일반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자칫 대상의 본질을 간과할 수 있으며 대상이 지닌 본질적 의미와 새로운 면을 볼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해 참신한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연암의 다양성의 관점과 대상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창의적 글쓰기에 대한 사유를 감지하게 한다. 이에 대해 고미숙은 “『열하일기』는 여행의 기록이지만, 거기에 담긴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과의 ‘찼한’ 접촉이고, 침묵하고 있던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발견의 현장이며, 해로운 담론이 펼쳐지는 경이의 장이다.”라고 하였다(고미숙, 2003, 26).

타인의 생각에 동조하고 의존하는 것은 자신의 사고력 함양에도 방해가 될뿐더러 대상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는 데도 장애가 될 수 있다. 물소리의 다양성, 코끼리 형상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세부적 관찰과 이를 표현하는 글쓰기는 창의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

결국, 연암의 글쓰기 방법은 자연사물을 인식하는 관찰 태도와 표현의 기법에서 찾을 수 있다. 연암의 자연사물 인식 태도는 구체적인 관찰, 자연사물 개별에 대한 관심과 관찰, 그리고 비유적 관찰과 표현이다. 개별 사물에 대한 구체적 관찰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당시 관찰자의 시각이 반영된 새로운 면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찰자의 시각에서 찾은 적절한 비유적 표현은 자연사물의 위치에서 관찰

자가 느끼는 분위기와 관찰자의 독창적인 관점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표현 기법에 있어서 연암이 활용한 형상화 기법은 관찰한 사물과 장소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묘사란 사물이나 상황, 대상을 그림을 그리듯 그대로 재현해 내는 것으로, 묘사하는 글은 언어를 사용하여 사물이나 상황,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글을 말한다. 글을 쓰는 사람이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과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각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연암의 글쓰기는 자연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자연과 교감하여 이를 장소감 표현과 같이 형상화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지리적 시각을 반영한 창의적 글쓰기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대상을 보고 느낌을 받는 것으로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볼 때는 눈으로 본다. 무엇을 보고 못보고는 눈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때 눈으로 본다는 것은 대상이 지닌 외현적인 형태를 보는 것과, 대상의 내면에 내재된 본질과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이다. 대상의 외현적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면에 내재된 본질과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관찰력’이 필요하다.

관찰력은 관심, 이해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관심은 사물을 보는 출발점이다. 관심이 있어서 보인다는 것이다. 늘 보는 것도 관심이 없으면 지나치게 되고,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이해는 관심의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대상에 대한 관심이 주어지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정보와 지식에 의거하여 대상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이해의 과정을 통해 대상을 보는 안목이 형성되는데, 이 안목에 의해 관찰력이 배양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연암의 관찰법을 활용한 지리적 글쓰기는 자연환경 관찰력을 배양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암의 『열하일기』 글을 대상

으로 하여 연암이 활용했던 관찰법을 분석하였다. 연암의 관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연암의 관찰법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찰이다. 관찰 대상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관심 부여, 관심 대상에 대한 오랜 응시, 대상과의 교감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톺진 관찰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오감을 활용한 관찰과 오감 활용의 위험성과 함께 인식이다. 연암은 자연사물의 관찰에서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오감을 두루 활용하여 대상과 주변의 상황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느끼고 감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관찰이 시각에 주로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감각을 함께 활용하여 깊이 있게 관찰한다. 또한, 감각이 지닌 한계와 위험성을 인식하여 대상의 외현적인 모습에 한정된 관찰과 찰나적 관찰, 고정 관념과 선행 경험에 의지한 감각적 관찰의 위험성과 한계를 경계하면서 객관적이면서도 통찰적 관찰을 실천하였다.

셋째, 자연과 인간에 대한 평등 의식을 지닌 관찰이다. 연암은 자연을 인간과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았다. 그래서 자연의 시각에서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자연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그리고 생태적 시각에서 자연을 더 소중히 하고 인간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암시를 지니고 있다.

넷째, 부분적으로 관찰한 것들을 형상화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그리고 현장감 있게 묘사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형상화 기법은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형상화는 관찰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비유법과 의인법을 활용하였는데 적절한 비유적 표현은 관찰 대상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또한, 관찰 대상이 존재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장소에 대한 느낌을 장소감으로 표현하여 현장감을 주었다.

다섯째, 다양한 관점을 활용한 다양성 발견 관찰이었다. 연암의 자연 사물 관찰에는 연암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모든 사물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러한 다양성을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찾아내는 적극적인 관찰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지리적 환경에 따라 다양성을 지닌 다양한 개체들의 특성을 발견하고 표현한다는 면에서 창의적인 지리적 글쓰기의 효능감을 높이는 데 의미있는 일이다.

글쓰기는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행위다. 지리적 환경을 무대roman 한 자연 사물을 깊이 있게 꼼꼼하게 관찰하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형상화하여 생동감있고 현장감 있게 표현한 연암의 글은 고전의 문장으로 글쓰기를 주로 하였던 당시의 상투적인 글쓰기를 혁신했던 것 만큼이나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면에서 창의적 지리 글쓰기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 글쓰기의 원천은 자연사물에 대한 세부적 관찰과, 교감, 형상화, 다양한 관점과 다양성 발견에 기반하고 있다.

주

- 1) 연암의 「초정집 서문楚亭集序」에는 다음의 글이 있다.
하늘과 땅이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존재하고, 해와 달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빛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다. 또 이 세상의 문헌이 아무리 방대하다고 해도 그 내용은 각가 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날짐승, 길짐승, 물속의 짐승, 뛰는 짐승 가운데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며, 산천 초목에는 반드시 신비스러운 구석이 있을 것이며, 썩은 풀에서 빈디불이 생긴다. 또 예법을 따지는데도 의견이 다르며, 음악을 설명하는데도 의론이 맞지 않으니 책이라고 해서 할 말을 다 쓴것은 아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이다. 출처: 최신희, 1985, 94에서 재인용
- 2) 최신희는 당시 조선후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朱子의 해석에 따라 개별적인 자연사물이 아니라 사물의 전체를 꿰뚫는 理를 궁구해서 지식을 집적하려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러한 연암의 개별적인 자연사물에 대한 관찰과 성, 색, 정, 경의 방법 활용은 괄목할 만큼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 강혜규, 2008,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와 자연,” 민족문화사연구, 36, 62-83.
- 고미숙, 2003,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시공간, 그린비.
- 김다원·방담이·박상민·이상민·정종진·조윤아·최선경·하병학·현남숙, 2013, 읽는 저자, 쓰는 독자-창의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김영채, 2004,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력의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 나탈리 골드버그(차윤진 옮김), 2001, 버리는 글쓰기, 북뱅.
- 로버트 루트번스타인·미셸 루트번스타인(박종성 옮김), 2007, 생각의 탄생, 예코의 서재.
- 루츠 폰 베르더·바바라 슈테-슈타니니케(김동희 옮김), 2004, 즐거운 글쓰기, 동녘.
- 바버라 베이그(박병화 옮김), 2010, 하버드 글쓰기 강의, 에쎬.
- 박수밀, 2010, “이덕무 산문의 생태적 글쓰기와 그 의미, 작문연구,” 10, 407-434.
- 박수밀, 2011a,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 과정 고,” 溫知論叢, 28, 204-230.
- 박수밀, 2011b, “연암 박지원의 생태글쓰기와 그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22, 353-383.
- 박수밀, 2013, 연암 박지원의 글짓는 법, 돌베개.
- 박승규, 2011, “인정,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쓰여지지 않은 공간을 발견하다: 지리학이 인문학인 또 다른 이유,” 대한지리학회지, 46(6), 767-780.
- 박종원, 2004, “과학적 창의성 모델의 제안-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2), 375-386.
- 박종채(박희병 옮김), 1998,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 박지원(김철조 옮김), 2009a, 열하일기 1, 돌베개.
- 박지원(김철조 옮김), 2009b, 열하일기 2, 돌베개.
- 박철웅, 2013, “지리교육에서 체험활동으로서 야외답사의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163-177.
- 박희병, 1999, 한국의 생태 사상, 돌베개.
- 손용택, 2004, “열하일기에 비친 연암 박지원의 지리관 일고찰(I),”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3), 497-510.
- 송연근, 2004, “교실 지리 수업의 대안적 접근으로서 답사,” 초등교육연구논총, 20(1), 21-38.
- 오선민·이종원, 2014, “중등학교 지리답사 연구 -목적, 유형, 계획과 제약요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1), 111-130.
- 이경한, 2004, “지리수업에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 방안 모색,” 사회과교육, 43(4), 85-106.
- 이종원·함경림·김보경, 2007, “워크북 스타일 답사 자료집의 개발과 적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5(4), 345-361.
- 임선하, 1997, 창의성에의 초대, 교보문고.
- 임은진, 2011, “사회가 야외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연구,” 사회과교육, 50(4), 217-228.
- 정재승, 2011, “지리과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59(2), 563-597.
- 차경미, 2008, “고교지리 교수-학습과정의 현장학습을 위한 지형 학습장 개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신희, 1985, “연암(燕岩)의 문학론에서 본 사물인식과 창작의식,” 韓國漢文學研究, 8, 89-110.
- 최신희, 1988, “연암의(燕巖) 문학론에서 본 사물의 인식 문제,” 東洋學, 18, 493-503.
- 최정동, 2007, 연암 박지원과 열하를 가다, 푸른역사.
- Kent, M., Gilbertson, D. D., and Hunt, C. O., 1997, Fieldwork in geography teaching: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pproache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1(3), 313-332.
- Kronman, A., 2007, *Education's end: Why our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given up on the meaning of lif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교신: 김다원,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교육전담교수(이메일: veritas2@catholic.ac.kr, 전화: 02-2164-4644)
- Correspondence: Da Won Kim, Teaching Professor, ELP Colleg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Jibong-ro 43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420-743, Korea (e-mail: veritas2@catholic.ac.kr, phone: +82-2-2164-4644)
- 최초투고일 2014. 9. 21
수정일 2014. 10. 21
최종접수일 2014. 10. 24